

## 제1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사야1:1, 6:1-13

선지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지자로의 부르심은 6장에 나온다.

1:1과 6장에 사이에 끼여 있는 예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받은 이상, 즉 계시다. 이사야6장 내용을 먼저 보고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해진다.

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 활동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 순교당했다.

이스라엘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사야 순교'라는 책은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사야는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 있는 고목나무에 숨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이를 고발하여 군사들이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 죽임당했다고 전하고 한 것으로 이사야를 죽였다고 전하고 있다. 히브리서 11:37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톱에 썰려 죽임 당한 순교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사야1:1과 히브리서11:27을 읽고 순교자로서 이사야를 잠시 묵상해보자.

②. 이사야는 웃시야가 죽은 주전 739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웃시야는 유다 10대 왕으로 791년부터 739년까지 약 52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이다.

재위 초기 그는 부왕의 대적인 에돔(동쪽), 블레셋(서쪽), 아라비아(남쪽), 및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견고히 하였고, 농경을 발전시켰으며, 군대를 위해 무기를 예비하는 등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

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다. 그로 인해 웃시야는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대하 26:16-23).

한편 나병 발병 후 죽기까지 그의 아들 11대왕 요담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다.

이때부터 디글랏빌레셀3세(주전743-726)가 통치하는 앗수르가 근동의 강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그는 여러 번의 원정으로 대부분의 근동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지만, 웃시야가 살아 있을 동안 남유다는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웃시야가 죽자 디글랏빌레셀이 이끄는 앗수르는 남유다를 수시로 공격하며 남유다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웃시야가 죽으면서 유다의 국운은 급격하게 기울고 앗수르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된다.

이사야5:26-30은 웃시야가 죽은 후 남유다가 디글랏빌레셀이 이끄는 앗수르에 의해 침략당하는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5장26-30절을 읽고 궁중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 했을지 상상해보자.

③. 디글랏빌레셀3세가 이끄는 앗수르군이 수시로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궁중선지자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고도다”라고 하며 소리친다.

이사야6:2-5절을 읽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신의 부정함과 유다백성의 부정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자.

④. 이사야가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보고 경악하며 무한한 자기체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며 네 죄가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신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6절-8절 전반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인간이 그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되어 그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묵상해보자.

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던 중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며 슬픔 중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며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여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의 의미를 알게 하는 사명이다.

9절-12절을 읽고 이사야에게 부여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알게 하는 사명을 확인해보자.

⑥.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죄가 제거되고 사함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유다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루터기 이상’을 보여주신다.

13절을 읽고 왜 유다 백성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과 토지가 황폐해지는 심판을 통해서만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지 그리고 거룩한 씨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